



메종의 프렌즈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경험한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마리너 메모박스

단편 영상 *호흡(In a Breath)*의 촬영을 위해 베네딕트 컴버배치(Benedict Cumberbatch)가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마리너 메모박스를 착용한 이후 이 모델은 그가 아끼는 제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이 위치를 착용한 배우이자 그랑 메종의 프렌즈인 그는 캐주얼하고 세련된 데일리 타임피스와 고성능 다이버 시계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폴라리스 마리너 메모박스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했습니다.

“슬림한 디자인의 다이버 시계인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게다가 스타일리시하기까지 하죠. 집에서 점퍼와 함께 착용할 수도 있고 잠수복과도 매치할 수 있어요. 간결하고 세련된 실루엣으로 바다에서 혹은 자전거를 탈 때, 사진 촬영이나 휴식 시간에도 언제나 함께할 수 있죠.”

그는 이 타임피스가 메모박스 알람 무브먼트를 장착하여 폴라리스 마리너 모델에 특별한 매력을 더했다고 덧붙입니다. *“알람은 특히 디지털 알람과 비교하면 더 완벽합니다. 훨씬 부드럽고 조용하죠. 위치를 착용하고 있으면 매우 잔잔한 진동이 느껴져서 정말 좋아요.”*

또한 베네딕트는 우아한 디자인과 편리한 기능 그리고 뛰어난 성능을 하나의 위치에 결합한 예거 르쿨트르 디자이너의 능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가벼운 무게에 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다이버 시계로는 드물게 글래스를 통해 뒷면 메커니즘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좀 괴짜라서 메커니즘 관찰을 좋아하거든요. 300m 수심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레저 다이빙 및 전문 다이빙을 모두 아우를 수 있어요. 그 정도 깊이에서 압력을 견뎌내고, 투명한 뒷면을 통해 메커니즘이 보이도록 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기술력도 매우 인상적이지만, 다이버 시계로서 놀랍도록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모델이죠.”*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마리너 메모복스는 언제 어디에서나 탁월한 타임피스로 눈부신 빛을 발합니다.

“많은 다이버 시계와는 달리, 손목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즉 다이빙할 때 뿐만 아니라 캐주얼하게 착용해도 무리가 가지 않죠. 시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클래식 오브제입니다.”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마리너 메모복스

새로운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마리너 메모복스는 예거 르쿨트르가 최초로 선보인 다이버 시계의 강력한 성능과 고유한 미학적 전통을 따릅니다. 더욱 향상된 기능은 물론 ISO 6425 다이빙 사양을 준수하며 300m(30 바)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처리된 블루 다이얼이 동심원을 이루고 있는 링은 스포티하면서 현대적인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956 은 예거 르쿨트르 최초의 오토매틱 알람 시계 칼리버를 계승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마리너 메모복스는 투명한 사파이어 케이스백에 맞게 설계된 새로운 페리페럴 공을 장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거 르쿨트르 알람 시계의 매력적인 시그니처인 ‘스쿨 벨’ 사운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1833 년부터 이어온 파인 워치메이킹의 명가

고요하고 평온한 발레 드 주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의 메종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특별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구성원들이 쥐라 산맥의 뛰어난 경관에서 영감을 얻어 그들의 끝없는 내면의 열정을 펼쳐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에서는 워치메이커,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공예 장인들이 하나의 워치를 완성시키는 작업을 함께합니다. 모든 구성원은 워치메이킹을 향한 에너지와 협동 발명 정신에 힘입어 절제된 세련미와 기술적 창의성을 키워갑니다. 이러한 정신은 1833 년 이래 1,200 개 이상의 칼리버를 발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예거 르쿨트르를 가장 뛰어난 워치메이커로 만들었습니다.
